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전기공학과	이름	임xx
파견국가	GERMANY	파견도시	BRANDENBURG
파견대학	Technische Hochschule Brandenburg	파견기간	2018.08~2019.08
귀국여부	2019-07-31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Berlin 근처인 줄 알고 지원하지 말자. 베를린에서 기차로 약 1시간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매우 안락하고(=쉬움), 평화로운(=지루함) 동네이다. 학교는 순천향대에 약 25% 크기로 버스 타려고 땀별에서 줄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은 학교이다 보니 믿을건 친구들뿐이다,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가질수 있다. 오히려 큰 학교들보다 유일한 나옴점 한가지다. 쪼뼛대지 말고 얼굴에 쥐나도록 웃음을 일관한다면 학교내에 인싸가 될수있다. 장담한다.</p>
2018-2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p> <p>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전반적으로 독일어를 구사할수 있다면 전공 선택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지만, 영어만 믿고 온다면 자연스레 경영수업을 선택하게 될것이다. 수업의 내용은 한국의 큰 틀과 다를바 없지만 수업 방식은 보통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양방향 소통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두고 진행된다. 전공과목에 관련된 수업들은 사실 기억이 안난다. 선택의 폭도 매우 좁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그리 많지 않다. 독일과 관련되서 교환학생들 위주로 진행되는 몇가지 수업들이 있는데 매우 흥미로우니 기회가 되면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p>

2019-1학기 수업	<p>기본적인 영어 수업은 1학기과 2학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서 1학기때 영어 진행수업을 전부 듣게 된다면 2학기때는 선택할수 있는 영어수업 강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수있다. 독일에 관심이 많다면 2학기때는 학교수업 1~2개듣고 베를린으로 독일어 학원을 다니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은 학기 시작의 전주에 보통 시작하며 교환학생을 위한 특별 참여 프로그램은 없다. 약간의 기본적인 동아리가 있긴하지만, 작년에 보낸 나의 동아리 문의는 아직까지 답장이 오지 않았다. 담당부서라고 하기에는 거창하고 Fraw.Heike씨가 교환학생들을 담당해준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	-----------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허나 여름에는 해가 10시까지 뜨고 겨울에는 해가 4시면 진다. 한국과 비교하여 극악무도하게 덥거나 춥지는 않다. 겨울에 한국 패딩 입고 다니면 애들이 에베레스트 등반하는줄 착각할수도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정말 심각하다 모두 다시 한번씩 곱씹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여름 날씨는 극악무도 하다. 어제 37도 까지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신기루를 보았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학교주변은 안전하다, 허나 베를린은 다소 위험할수 있으니 분위기에 취해서 나대다가 불상사를 겪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숙사는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로 나뉘어져있으며, 1인실은 인기가 많아 빠르게 숙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들다. 나머지의 경우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지만 방은 혼자 쓰고 주방과 화장실만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다. 한국의 기숙사와 같이 외박계 개념이 없고 그냥 나의 집 개념으로 보고 언제든지 외출입이 가능하다. 한가지 불편한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키를 사용한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키 잃어버려서 집에 못들어갔던 레트로 감성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다면 키 보관 잘하자. 그리고,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장소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딜가나 이상한 친구들은 꼭 존재한다. 본인의 운에 맡기자.</p>

식사	<p>학교 Meal Plan (v)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 직접 요리 (v)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Mensa 라고 학교내에 식당이 있다. 2euro or 2.5euro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 된다. 저녁은 보통 주변 큰 마트에서 장을 봐서 해먹을수있다. 남성이라면 오기전에 약간의 요리를 배워오는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기숙사에 산다면 주요 건물들은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학교 주변이라 그런지 모든 트램들이 학교 앞 정거장에 정차하며, 중심가 혹은 중앙역 까지 갈수 있다. 트램을 타고 중앙역까지 20분 정도 소요되며,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이면 베를린 까지 갈수있다. DB or VBB app을 이용하면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수있다. 참고로 독일에서 대학생들은 모든 교통수단이 무료이다(베를린 주 한에서). 학생증을 꼭 지참하도록하자.</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300,000원(왕복)	100,000 비행기 날짜 변경 비용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global care 보험 가입함
숙소		250euro for a month but depend on flat
식비		25euro for a week
교통비		Free
책값		X
기타1	Tv and radio fee	
기타2	Student id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딱히 존재 하지 않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 오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될것이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속으로는 살짝 겁이 났지만, 겉으로는 설레이는 척하며 출국날을 기다리던 1년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독일이 다른 국가에 비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덕에
한국인이라고는 단 1명도 찾아 볼수 없는 낯선 땅에 홀로 생활하는 영예를 얻었다.
한편으로는 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었다.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스페인 여행



동유럽 여행



연말 음식 교환



baumblütenfest



campusfest



친구 동네 도장깨기 Belgium



친구 동네 도장깨기 Netherlands



베를린 한식 셰어